



뜻기비콘텐츠

단체소개

덧가비콘텐츠 | DKBC



덧가비콘텐츠는 공연예술·문화콘텐츠 창작 단체입니다.

현대의 고민을 뮤지컬과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여 풀어낸
공연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 시대를 연결하는 소재로 공연 예술을 기획하며
지역과 거리를 뛰어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완성도 높은 K-창작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otgabi contents

DKBC Dreams keep to blazing your mind

dotgabi contents는 우리 문화를
현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고민과 문제를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여 풀어내
시대를 관통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하고자 합니다.

K에게 사랑받는 K-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창의성과 능동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OGO

Symbol logo

브랜드 네임의 의미를 모티브로
도깨비 얼굴 형상과 약자 DKBC를 활용한
심볼형 로고입니다.

도깨비의 송곳니를 중심으로 코와 눈매를
모던한 이미지로 그려냈으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보라색 계열 컬러를 조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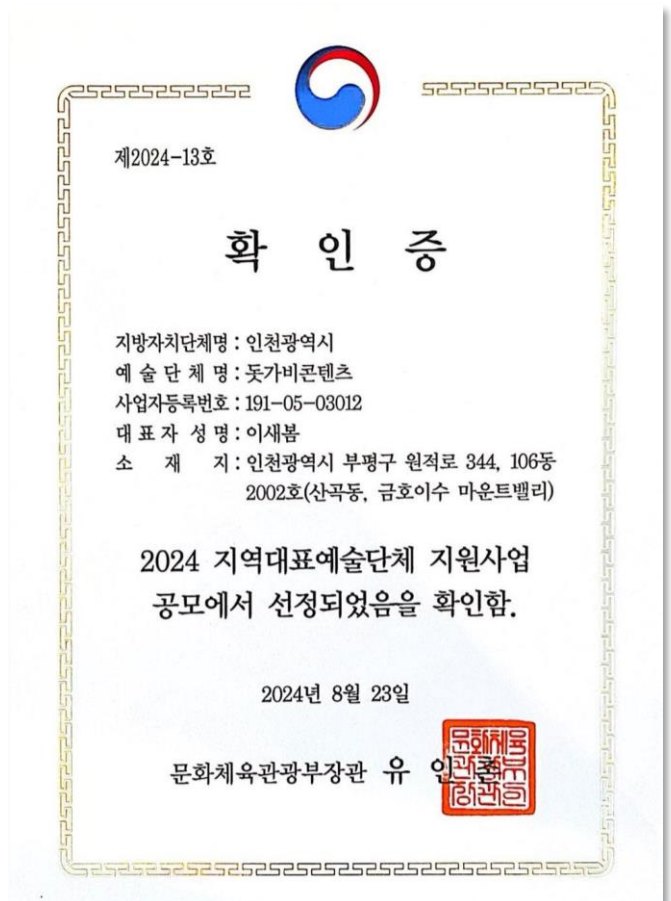
dotgabi contents



HISTORY

dotgabycontent의 행보 (2019년 전신)

- 2023년 창단
- 2024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 인천형 예술인 지원 업 선정작 협력제작
- 인천문화재단
- 삼삼오오 작은모임지원 사업 협업
- 부평구문화재단
- 퓨전뮤지컬 <탈> 협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

CONTENTS

돛가비콘텐츠의 공연·문화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옥뱅이뎐

어긋나는 데서 시작되는 우리의 이야기



퓨전뮤지컬 <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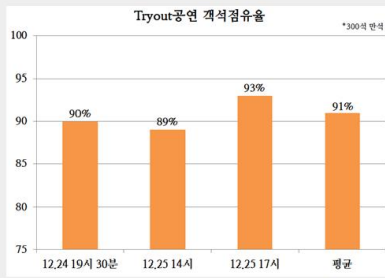
창작 퓨전국악 뮤지컬 <탈>

일시: 2019년 12월 24일~25일
장소: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주최·주관: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이세봄
작·연출: 이세봄
작곡·음악감독: 이형진
안무감독: 한지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광역시

기획의도

- 국악을 입힌 뮤지컬을 제작하여 많은 연령층에서 국악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 풍자와 해학이 살아있는 서민의 문화인 '탈춤'의 정신을 살려 시대의 문제들을 꼬집어 본다.
(2019년 기준: 버닝썬 사태, 입시 비리, 미투 운동 등에 대해 논함)

창작작품 결과-객석 점유율



창작작품 결과-공연 만족도

- 공연을 관람하러 온 10대~60대 6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공연이 재미있었느냐는 물음에 77.3%(51명)의 대상자가 매우 재밌었다고 응답했다.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물음, 재공연 시 재관람 의사여부, 지인 추천 의향도에 대한 질문 역시 '보통이다'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약 85.4%를 차지했다.

▲단체 전신에서 만든 작품 <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사업] 선정

SCHEDULE

2023-2025 옥뱅이던 로그

인천, 뮤지컬 아일랜드!

- 찾아가는 공연 -
(run time 100')

2024.10.29.
19:00 덕적초중고등학교
*해군 장병, 덕적 도민 대상 70여 명

2024.11.08.
09:50 백령초등학교
*초등학생, 유치원생 대상 70여 명

2024.11.08.
18:30 백령초등학교
*백령 도민 대상 100여 명

2024.11.22.
14:00 강화문예회관
*해병 장병 대상 180여 명

쇼케이스

(run time 115')

2023.12.9.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뮤스킹

- 거리 공연 -
(run time 40')

2025.11.30.
12:00 부평 문화의 거리

2025.11.30.
16:00 청라 호수공원
- 청라루

창작뮤지컬 <옥뱅이던>

- 정식 초연 -
(run time 120')

2025.1.18.
송도 트라이보울

2025.2.
부평아트센터(예정)

2025.2.
동구 체육문화센터(예정)



▲ 지역 청년예술인, 관객과 함께한 '팀 옥뱅이던'



닷가비콘텐츠의 주요 이력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통(通)할 수 있는 전통의 재창작

- vol.2 문화도시 부평, 방법을 고안하다 -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구분	세부내용
회의의용 (요약)	모임명 K+청년(Korean arts+청년)
	모임인원 이세봄 외 4인(고다연, 이훈가, 최민우, 한지은) ※ 기존: 이정현 → 변경: 이훈가(ID: hoonski107)
	모임 주제 다양한 세대와 통(通)할 수 있는 전통의 재창작 - vol.2 문화도시 부평, 방법을 고민한다 -
	회의의용 1) 부평과 문화도시 부평 사업을 이해하고, 2) K+청년 모임의 정체성에서 기반한 사업과 콘텐츠 를 발의한다.

※ **의제** 제안은 '문화도시부평'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에 청리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권오현/박재영>

전통이 가진 힘과 현대적인 가치를 엮어서 청년예술가가 좋아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문화도시부평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지나해, 부평-전통예술-청년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본다. 청년문화예술 관련발 발의해본다. 이를 실험하여 9월에는 '부평', '문화도시사업' 및 K+청년 모임의 주된 관심사인 '다양한 세대와 통하는 청년-전통'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브레인지스토밍을 하고, 의제를 제안해 보았다.

[문화도시부평 사업, 부평 관련어휘]

Q. 부평문화재단의 문화도시부평 사업을 통해 이야기해볼시다.

- '삼의 소리'로부터 내 인생의 시냇물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에서 '창용', '강실'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른다. 시냇물영과 미션 등을 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 총재이재 내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같이 함께 도식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어도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문화도시 방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시민을 위한 사업이 주된 뜻입니다. 생활문화 형태, 교육, 강연, 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사업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 또한, 장르 부문에서는 '예술'적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대중음악, 밴드도 포함 될 것 같아요. 부평의 문화적 가치, 정체성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은 것 같아요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민 주도의 모임,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작은 참여라도 문화와 가까워지도록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생활 곳곳에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는 것 같고, 하를 낮은 문화를 지원하는 것은 같아요.



▲단체 대표자 '이새봄' 선정되어 팀 활동